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케냐

Republic of Kenya

2020년5월25일 | 책임조사역(G3) 박지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580천 km ² 	인구 5,257만 명 (2019년)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대외정책 친서방 정책 
GDP 965억 달러 (2019년) 	1인당GDP 1,836 달러 (2019년) 	통화단위 Kenya Shilling(Ksh) 	환율(U\$기준) 101.99 (2019년) 

-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한 케냐는 한반도 면적의 2.6배에 달하는 국토와 약 5,257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남수단, 우간다, 탄자니아 등과 접경하고 있음.
- 2019년 케냐 경제는 농업 부문 위축에도 불구하고 관광업 등 서비스업 호조, Vision 2030 및 4대 국정과제(Big 4) 이행에 따른 공공인프라 투자 등으로 5.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케냐는 정치적 성향보다는 출신 부족에 따라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아 과거 대선 때마다 부족 간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어 왔음. 2017년 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으로 여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불안한 정국이 지속되었으나, 2018년 여야 대표가 극적으로 화해하며 정세가 급격히 진정되었음. 다만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 선정을 놓고 연합당들 사이 분열이 발생하고 있음.
-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맹주국으로서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등 지역공동체 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아프리카 내 전략적인 경제·안보 협력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한편,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급격히 증대하여 현재 교역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對중국 채무규모도 큼.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4. 2. 7 수교 (북한과는 2008. 9월 수교)

주요협정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78), 문화협정('80), 항공협정('81), 대외협력기금차관협정('05), 무상원조협정('14), 이중과세방지협약('17), 투자증진·보호협정('17)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품목
수출	204,940	239,591	151,122	석유화학제품, 합성수지, 정밀화학원료
수입	40,192	50,453	43,596	기호식품, 동제품, 금속광물, 의류

해외직접투자현황('19년 말 누계, 총 투자기준) 31건, 10,452천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제성장률	5.7	5.9	4.9	6.3	5.3
소비자물가상승률	6.6	6.3	8.0	4.7	5.2
재정수지/GDP	-8.2	-7.7	-9.0	-7.0	-7.2

자료: EIU.

2019년 케냐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물가상승률도 중앙은행 목표치 내인 5.2% 시현

- 케냐 경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2019년에는 우기 지연과 이후의 폭우로 인한 농업 부문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관광업 등 서비스업의 호조, 민간소비 회복, 공공인프라 투자로 5.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케냐 정부는 Vision 2030에 맞춰 에너지·교통 분야 중심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 중으로, 표준궤 철도(SGR) 건설 2단계 사업¹⁾을 2019년 중 완공하였으며, 항만개발(라무항²⁾ 등, 발전소 건설 등이 진행 중임.
 - 201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2%로 케냐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관리목표 물가수준 5.0%±2.5%)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기록함. 다만 옥수수가루, 콩, 토마토, 양파 등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2019년 중 예상되었던 4% 중반의 물가상승률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임.
 - 2020년 5월 현재 기준금리는 7.0%로 2019년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200bp 인하되었으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부양 및 유동성 공급을 위해 케냐 중앙은행은 3월에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시중은행의 현금보유비율(CRR)을 기존 5.25%에서 4.25%로 낮추었음.
- * 2019.9월 9.0% → 2019.11월 8.5%(▼50bp) → 2020.1월 8.25%(▼25bp) → 2020.3월 7.25%(▼100bp) → 2020.4월 7.0%(▼25bp)
- 한편, 케냐 중앙은행은 2016년에 도입하였던 이자율 상한 제한 규정을 2019년 11월 폐지하였음. 이로써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유연성과 효과성이 점차 강화되고, 현지 민간기업에 대한 은행의 신용대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연도별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EIU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EIU

1) 나이로비-나이바사 구간(120km) 건설 사업(15억 달러 규모)으로 '19.10월 운영 개시됨.

2) 라무항 내 32개 정박지를 건설하는 50억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LAPSET에 따르면 현재 1개 정박지 건설이 완료되었으며, 2개 정박지 건설 공정률은 70% 수준임. 나머지 29개 정박지 건설은 추후 진행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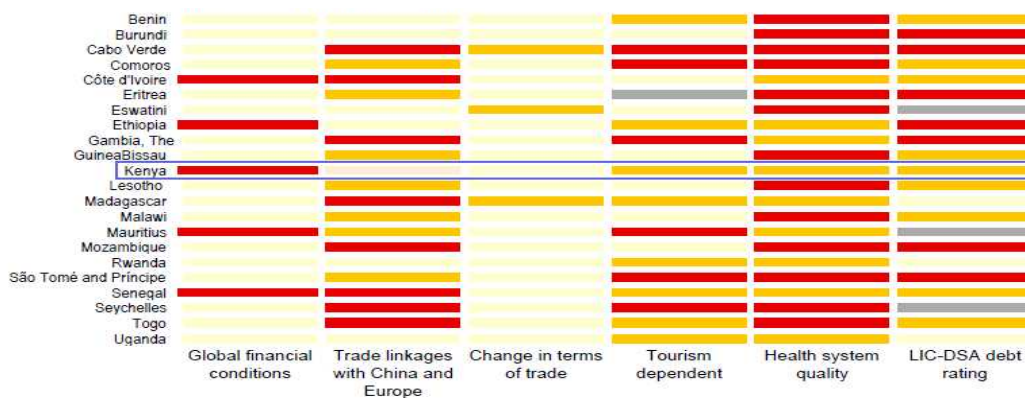
국내경제

대규모 메뚜기떼 창궐과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경제성장률은 급락할 전망

- 2019년 케냐의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강우량 증가로 메뚜기 생존에 최적의 조건이 마련되어 2019년 12월부터 메뚜기떼의 대규모 창궐³⁾이 발생, 이에 따른 농작지와 목초지의 황폐화로 인한 농축산물 생산량 급감이 우려되는 가운데 올해 4월 발생한 폭우⁴⁾로 2차 메뚜기떼 번식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수출(원예 등)·수입(중국산 등)규모의 절대적 감소, 서비스업(관광업, 운송업 등) 위축, 공공투자 감소, 가계소비 위축, 기업투자 감소 등 전반위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2020년 경제성장률 예측치: 케냐 재무부 1.8~2.5%(4월), 중앙은행 2.3%(4월), IMF 1.0%(4월), EIU -2.3%(5월)).
- 특히, 경기침체와 맞물려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실시된 이동제한 조치는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비공식 경제영역 종사자들의 생계 어려움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음.
- IMF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경제전망 보고서(2020. 4월)에 따르면, 케냐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대한 취약성이 높으며, 관광업·교역관계(중국·유럽)·보건시스템·채무 지속가능성 관련 취약성은 보통, 교역조건 관련 취약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케냐의 연간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7~9% 수준으로 이미 높은 수준이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로 재정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사회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이 요구되는 바, 2020년 재정적자 규모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4월 말 의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지출(보건, 식량구호, 재난지원금 지급 등), 세금 감면 등의 정책 실행과 재정수입 감소 예상분(GDP의 0.85% 수준) 반영을 위해 2019/20 회계연도 기준 GDP의 2.3%(2,343억 실링) 수준의 추가예산을 배정하였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자원빈곤국가의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취약성*



자료: IMF.

* 취약성 등급 부과 기준: ①글로벌 금융환경 항목: 유로존도 발행국 높음, 비발행국 낮음, ②중국·유럽 교역 관계: 2018년 기준 중국·유럽과의 수출입액이 2018년 기준 GDP의 20% 초과 시 높음, 10~20%인 경우 보통, 10% 미만 시 낮음. ③교역조건: 2020년 교역조건이 10% 넘게 악화 전망 시 높음, 교역 개선 전망 시 낮음, 그 외 보통, ④관광업 의존도: 관광업이 GDP의 5%·수출의 30% 초과 시 높음, GDP의 2%·수출의 5% 미만일 경우 낮음, 그 외 보통, ⑤보건시스템 수준: 세계보건안전지수(Global Health Security Index)가 33.3보다 작으면 높음, 33.3~66.6 사이는 보통, 66.6보다 큰 경우는 낮음, ⑥저소득국가의 채무지속가능성: IMF·WB의 채무지속가능성 분석보고서의 최근 평가결과

3)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에 따르면 케냐에서 시작된 이번 메뚜기 떼는 70년 만의 최대 규모임

4) 케냐 대통령은 5월 6일 성명을 통해 4월 중 발생한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서부·중부·해안지역에서 200여 명의 사상자와 1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32km²의 농지가 작물 피해를 입고, 수도 나이로비 등 케냐 중심지의 상수도 시설이 파괴된 것으로 파악됨.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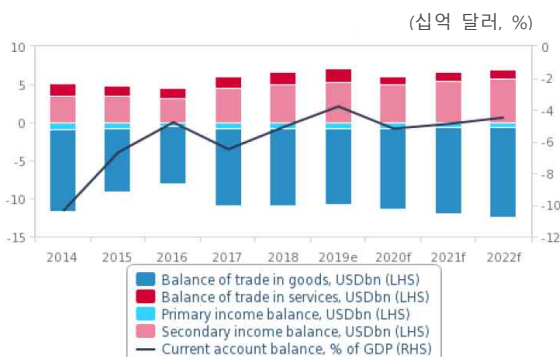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상수지	-4,289	-3,697	-5,018	-4,322	-3,886
경상수지/GDP	-6.7	-5.4	-6.4	-4.9	-4.0
상품수지	-8,375	-7,666	-10,202	-10,237	-10,357
상품수출	5,982	5,747	5,792	6,105	5,854
상품수입	14,358	13,413	15,994	16,342	16,211
외환보유액	7,515	7,554	7,319	8,152	9,037
총외채	25,961	30,842	36,662	42,549	48,121
총외채잔액/GDP	40.6	44.6	46.6	48.4	49.9
D.S.R.	26.9	26.7	36.3	38.0	51.0

자료: IMF, EIU, OECD

2019년 경상수지 적자폭이 축소되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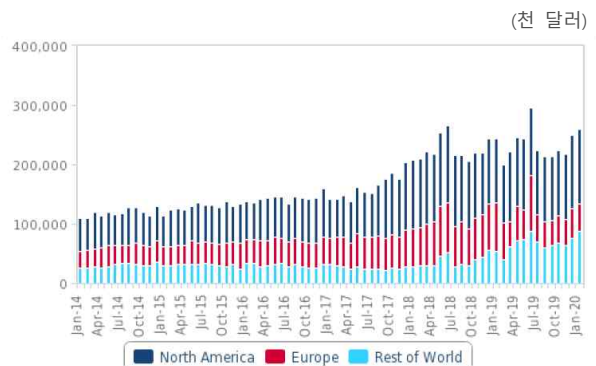
- 2019년 경상수지 적자액은 차·커피 등 상품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본재·석유제품 등 상품수입 감소, 비거주자 해외송금 유입 증가, 관광업의 외화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10.1% 감소하였음.
- 2019년 자본재 수입수요는 동아프리카 표준궤 철도(SGR) 건설 프로젝트 1단계(나이로비-몸바사 구간) 공사 완료로 일부 감소하였으나, 2단계 건설에 따른 추가적인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였음. 한편, 2020년 상반기 유가 급락으로 석유제품 수입액은 당분간 감소할 것으로 관측됨.
- 2020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사태로 주 외화소득원인 관광업의 급격한 위축, 원예 등의 상품수출 수요 급감, 미국·유럽 등 해외거주자 송금액 감소 등으로 2020년 경상수지 적자폭은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케냐 정부는 해외투자 유입보다는 외채로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어 외채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경상수지 및 구성 요소



자료: Fitch Solutions

거주지역별 케냐 해외동포의 송금 유입 현황



자료: Fitch Solutions

외채상환능력

GDP 대비 높은 외채비중은 경제구조적 취약성 및 코로나19 사태로 추가 상승 우려

- 케냐는 쌍둥이 적자, 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공공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자본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FDI 등의 민간자본 공급이 크지 않아 적자 보전을 위한 공공부채 및 외채 조달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 GDP 대비 공공부채는 2015년 50.2%에서 2019년 61.7%로, 총외채잔액은 2015년 40.6%에서 2019년 49.9%로 상승

- 2019년 말 기준 국외채무(external credit) 중 33.5%는 다자기구로부터, 33%는 개별 국가로부터 조달하였으며, 상업금융(유로본드,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한 조달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양자간 채권의 약 72%는 파리클럽 비회원국가들로부터 조달하였으며, 이중 중국에 대한 채무가 대부분임.

* IMF에 따르면 2015년 총 국외 공공채권의 22.75% 수준에서 2019년 기준 33%로 증가함.

- 2019년 5월 유로본드 발행⁵⁾에 따라 2019년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5.1개월분(90.4억 달러)으로, 2018년 월평균수입액의 4.5개월분(81.5억 달러)보다 증가하였음. 대규모의 유로본드 발행은 케냐의 민간자본 조달능력을 어느 정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으나, 발행금액의 사용처가 이미 확정되었으며 상환의무가 존재하므로 유동성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단,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성장률 급락, 외화소득원(관광업, 원예작물, 비거주자 송금 등) 급감, 재정수입 감소, 실링(Shilling)화 가치 하락 등으로 외채상환능력과 유동성은 일부 다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IMF가 2020년 4월 말 발표한 채무지속가능성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채 취약성이 악화되어 케냐의 채무위험이 '보통'에서 '높음'으로 악화되었음. 다만, 이미 발행된 유로본드는 향후 프런티어 시장에 대한 국제자본 이동이 다시 활발해져 만기연장이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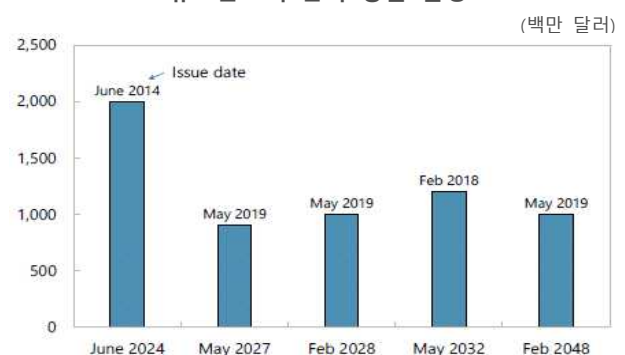
- IMF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케냐에 금년도 국제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긴급자금을 제공하고,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자 케냐 정부 앞 7.39억 달러 규모의 신속차관제도(Rapid Credit Facility) 지원을 2020년 5월 6일 승인하였음.

연도별 케냐의 공공부채 추이



자료: EIU

유로본드의 만기 상환 일정



자료: IMF

5) 금번 발행한 유로본드는 21억 달러 규모로, 2019년 6월 만기였던 차입금 상환에 750백만 달러가 사용되었고, 잔여액은 발행 직후 외환보유고에 추가되었으나 해당 금액은 인프라 사업, 일반 예산지출, 원리금 상환 등에 점진적으로 사용될 예정임.

구조적취약성

농업 의존적 경제구조에서 제조업 등으로 다변화 필요

- 케냐 경제는 농업 의존적 구조로, 2018년 기준 농업 생산량은 케냐 GDP의 34.2%*를 차지함. 또한, 식료품 및 비알코올성 음료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9%로, 농산물 가격이 국민 삶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큼.

* 2019년 1~3분기 기준 농업은 GDP의 36.1% (자료: 케냐 통계청)

- 그러나 케냐의 농업은 노동집약적이고, 미미한 관개 비율과 인프라 부족으로 생산성이 낮으며, 가뭄, 폭우, 메뚜기 떼 창궐과 같은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함.
- 케냐 정부는 농업 기반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인식하고 경제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구축하고자 제조업 육성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선정, 연간 15% 성장을 목표로 제조업 육성정책(2012~30년)을 추진 중임.
- 집중 육성 분야는 ①노동집약적 부문(식품가공업, 섬유·의류, 가죽가죽제품), ②중·상급 기술 부문(철강, 공작기계, 농기계·농구, 의약품), ③첨단제조기술 부문(생명공학, 나노기술) 등임.
- 그러나 제조업의 2018년 기준 3개년 연평균 성장률은 5%에 불과하며, GDP 대비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아직 제조업 발전 속도는 더딘 것으로 평가됨.

연도별 제조업 현황

(백만 실링)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1~3분기
제조업 생산	537,999	588,896	654,456	655,332	689,341	564,795
GDP 대비 비중	10.0%	9.4%	9.3%	8.0%	7.7%	7.6%

자료: 케냐 통계청

전력·수자원 등 기본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

- 케냐는 2019년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보고서에서 141개국 중 종합 95위를 차지하였으나, 인프라 부문은 110위로 하위권임. 교통 인프라의 경우 정부의 Vision 2030에 맞춰 철도·도로 건설 및 보수, 항만개발, 공항 건설 등 육·해·공에 걸친 전방위적 투자⁶⁾로 141개국 81위를 차지하며 주변국*에 비해 양호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나, 전기·가스 등 유틸리티 관련 인프라**는 115위로 여전히 열악한 수준임.

* 교통 인프라 순위 : 탄자니아 110위, 에티오피아 121위, 우간다 75위, 르완다 71위

** 세부 구성항목: 전력보급 112위, 전력공급 품질 114위, 안전하지 않은 식수 노출 113위, 물 공급 안전도 116위

- 케냐 정부의 전력 생산 및 송배전 관련 투자 확대로 전력보급률은 2012/13 회계년도 기준 23%에서 2018년 2월 72%로 확대되는 등 유틸리티 인프라 개발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케냐 정부의 3차 중기계획(MTP-III) 목표인 2022년까지 전력보급률 100% 달성 일정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보고서에 따르면, 케냐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생산 용량을 2022년까지 3,207MW를, 이후 최대부하를 맞추기 위해 5,221MW까지 확대하고자 함.
- 한편, 안전한 식수 공급률은 2013년 53.3%에서 2017년 58%로, 위생시설(sanitation coverage)은 67%에서 74%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저소득층은 식수와 위생시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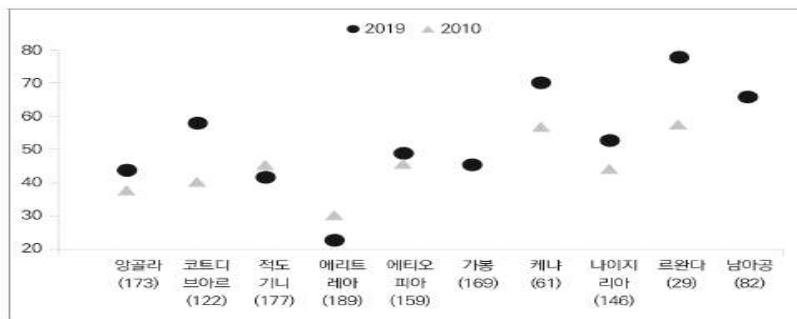
6) AfDB에 따르면 케냐는 2019년 4월 기준 지난 5년간 도로 건설(1,304km), 도로 개선(535km), 정비(4,212km), 유지보수(154,198km)의 성과를 거둠.

성장잠재력

특별경제구역 등을 통한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 케냐는 세계은행의 2020년 기업경영여건 조사에서 전년(61위) 대비 5위 상승한 56위(총 190개국)를 차지하며 아프리카 지역에서 모리셔스(13위), 르완다(38위), 모로코(53위)에 이어 4위를 차지함. 또한, 2019년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보고서 사업 역동성(Business Dynamism) 부문에서 141개국 중 51위(종합순위 95위)를 차지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들 중 전반적인 기업환경이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됨.
- UNCTAD⁷⁾에 따르면 케냐의 2018년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규모는 16.3억 달러로 제조업, 화학, 석유·가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년 대비 27.5% 증가하였음.

2019~20년 기업 친화 평가지수 변화



주: 괄호 안의 숫자는 190개 평가대상국 중 2019년 기업경영여건 조사 순위⁸⁾임
자료: KIEP⁹⁾

- 케냐 정부는 제조업 기반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수출을 촉진하고자 케냐 전역에 걸쳐 특별경제구역을 설립하였음. UNCTAD에 따르면 아프리카 54개국 중 38개국에 특별경제구역^{*}이 있으며, 이들 국가 중 케냐가 최다 지역(61곳)을 보유하고 있음.
* 경제특별구역 최다 보유국: 케냐 61곳, 나이지리아 38곳, 에티오피아 18곳, 이집트 10곳, 카메룬 9곳
- 케냐 내 특별경제구역은 10개의 단일기업지역(single-firm zone) 포함 총 71개로 이들 구역 내에서 5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650백만 달러(90% 이상 수출)규모의 연간 매출액을 시현 중임.
- 한편, 케냐 정부는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¹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무관세 혜택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 하는 외국 기업(의류업)을 적극 유치하였음. 그 결과 2000년 AGOA 제정 후 對미국 수출은 110백만 달러에서 2016년 550백만 달러로 급증하였고, 2017년 對미국 의류 수출(340백만 달러)의 94%가 특별경제구역에서 발생하였음.
- 케냐 정부는 對미국 수출 성과를 기반으로 수출대상국을 캐나다, EU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對미국 수출상품을 가공식품, 차, 과일, 원예 등으로 다변화시키고 있음.
- 이외에도 2019년 3월 케냐 정부는 국경을 초월하는 특별경제구역을 설립하고자 에티오피아와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을 형성하고, 양국 국경에 위치한 모알레(Moyale)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개발하여 공동의 행정·경제 허브 조성을 추진 중임.

7)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9

8) 나이지리아는 라고스를 기준으로 함.

9)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한국의 협력방안(2019.12월)

10) 아프리카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이 2015년 10월 연장되어 향후 10년간 미국 시장에 무관세, 무쿼터 의류 수출 가능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정책성과

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 난항

- 현 정부는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세수 확대 및 세출 합리화를 통한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 중임. 그러나 의회는 자본세(5%→12.5%), 가구세(household tax) 등의 세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으며, 상원은 지방정부 앞 더 많은 예산 배정을 위해 하원에서 승인한 중앙·지방정부 간의 예산 배정안을 한 달 넘게 통과시키지 않는 등 의회의 비협조로 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Vision 2030 및 4대 국정과제(Big 4) 추진 중

- 케냐 정부는 2008년 초 2030년까지 중소득국 진입과 산업화를 목표로 중장기 국가성장전략인 'Vision 2030'¹¹⁾을 발표하고 현재 제1차 중기계획(2008~12년), 2차 중기계획(2013~17년)에 이어 3차 중기계획(MTP-III, 2018~22년)을 추진 중임.
- 2차 중기계획은 인프라 개발, 취약계층 앞 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포용적 금융 제공, 학교 입학생 증가, 유아사망률 감소, 여성 역량 강화 등의 인적자원 개발 관련 성과는 유의미하였으나 경제성장률(목표: 연평균 10%), 실업률 감소, 소득 불평등 해소 등 관련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3차 중기계획의 9대 주요 분야는 인프라 개발, ICT 육성, 과학·기술·혁신(STI) 촉진, 토지 개혁, 공공분야 개혁, 노동·고용 창출, 국가 가치 및 윤리 확립, 가뭄에 따른 재난 해소, 안보·평화구축·갈등해결임.
- 특히 인프라 관련 주요 추진 사업은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 터미널 1-B-C-D 확장·보수 및 제2 활주로 건설, 몸바사항 제2 컨테이너터미널 2단계 사업 확장, 동고쿤두 자유무역항 개발, 라무항의 3개 정박지 완공 및 29개 정박지 증설, 표준궤도 사업 2단계(나이로비-말라바) 건설, 10,000km 포장도로 건설 및 개보수, 전력발전용량을 2021/22년까지 5,221MW로 확대(2017/18년 회계연도 기준 2,699MW), 116개 배전용 변전소 건설 및 1,244km의 전선 설치를 통한 배전망 확충 사업임.
- 한편, 2030 Vision 달성을 위해 정부는 3차 중기계획과 더불어 2018~22년간 4대 국정과제(Big 4)로 ①제조업* 활성화, ②서민주택 공급, ③보건·의료 향상, ④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선정하여 추진 중임.
 - * 특히 농산물 가공업에 집중투자 예정으로, 총 농업생산 중 농산물 가공업이 2022년까지 최소 50%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4대 국정과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경제로의 전환이며, 세부목표는 2022년까지 ①GDP 대비 제조업 비중 15%로 확대, ②최소 50만 개의 신규 주택 공급, ③전 국민 앞 보편적 의료 보장 제공, ④전 국민의 식량 안보 보장 및 영양 개선임.
- Vision 2030과 4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나, 현 정권은 재정건전화 정책도 함께 추진 중인 관계로 재정적자 규모 축소를 위해 정부지출을 줄이면서 기 계획했던 인프라 투자, 사회보장정책 등과 연관된 일부 사업이 지연 또는 취소되고 있음.

* 2019년 2월 13일자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월 승인된 658.6백만 달러 규모의 10개 사업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비양허성차관 사업의 경우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밝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저소득층 전기보급(Last Mile Connectivity) 사업, 콘자 기술도시 조성 사업,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 제2 활주로 건설 사업, 몸바사 윌슨 공항 확장 사업 등임.

11) Vision 2030은 크게 경제, 사회, 정치 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2012년부터 연평균 10%의 경제성장을 달성, 사회적으로는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평등한 사회발전을 통한 공정하고 화합하는 사회 실현, 정치적으로는 인권을 보장하고 일·결과 중심의 정치기반을 통한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이러한 목표 아래 10대 주요 과제로 거시경제 안정, 거버넌스 개혁, 소득 불평등 개선 및 빈곤층의 부 창출 기회 제공, 인프라 확대, 에너지 개선, 과학·기술·혁신 강화, 토지개혁, 인적자원 개발, 치안 강화, 공공분야 개혁을, 6대 육성 분야로 관광업, 농축산업, 무역, 제조업, 금융, IT를 선정하였음.

정치동향

2017년 대선 재선거 이후 여야 간 화해 국면으로 정세 안정화

- 일반적으로 케냐 정당 지지세력은 정치적 성향보다는 출신 부족으로 나뉘어져, 과거 대선* 때마다 부족 간 갈등으로 유혈사태가 일어나는 등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음.

* 2007년 대선 이후 야권 후보였던 라일라 오딩가의 부정선거 폭로에 따른 키쿠유족(케냐타 대통령 출신)과 루오족(야권 후보자 오딩가 출신) 간의 갈등으로 유혈사태가 촉발되어 두 달간 최소 1,100여명이 숨지고 60여만명의 피난민이 발생하였음.

- 2017년 8월 실시된 대선에서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이 54.3%의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하였으나 야권 후보인 라일라 오딩가는 일부 표가 해킹에 의해 불법 조작되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이 해당 선거를 무효 판결하면서 10월에 재선거 투표가 실시됨. 케냐타 대통령은 유효투표 총수의 98.3%를 득표하며 재선에 성공하였으나, 2차 선거 투표율은 38.8%로 오딩가 후보의 재선거 불참 호소로 야당 지지자들이 투표에 불참한 바 있음.

- 참고로 2017년 8월 개최된 1차 대선에서 키쿠유·칼렌진·마사이·소말리족은 여당인 주빌리당(Jubilee Party, JP)을, 루야·루오·미지켄다·터카나족은 야당 연합체인 전국수퍼동맹(National Super Alliance, NASA)*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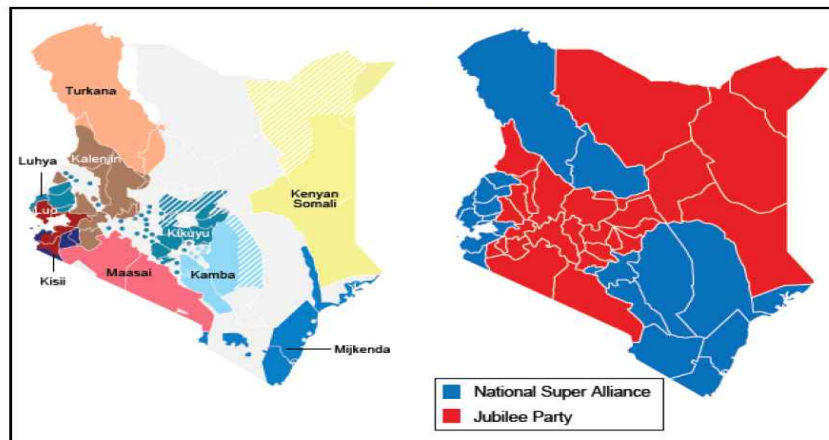
* Orange Democratic Movement, Wiper Democratic Movement, FORD-Kenya, Amani National Congress 등 5개 정당으로 구성

- NASA 대표 오딩가는 2017년 대선을 부정선거로 주장하며 2018년 1월 스스로 민중대통령이라 칭하는 등 야당의 선거 결과 불복으로 불안한 정국이 지속되었으나 2018년 3월 킬러슨 미국무장관의 케냐 방문을 계기로 여야 대표가 극적으로 화해하며 정세가 급격히 진정되었음. 다만, 정당 내 충분한 합의 없이 정치적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후 오히려 야당 연합체 내 분열 조짐이 야기됨.
- 2022년 대선에서 과거와 같은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평화로운 선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만연한 부족주의와 부정부패 척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017년 8월 대선의 정당별 지지 분포

지역별 부족 분포

2017년 8월 1차 대선 결과



Source: BBC, Kenyan Embassy to the UN, Kenyan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The East African. N.b. Kikuyu/Meru 22% of population, Luhya 14%, Kalenjin 13%, Luo 11%, Kamba 10%, Kenyan Somali 6%, Kisii 6%, Mijikenda 5%, Turkana 3%, Maasai 2%, Others 6%.

출처: Fitch Solutions

정치동향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연합당 내분 갈등 심화

- 칼렌진족 출신 통합공화당(URP) 소속의 루토 부통령은 2022년 대선 출마를 전제로 키쿠유족 출신 케냐타 대통령이 속한 국민연합당(TNA)과의 연합당¹²⁾인 쥬빌리당을 2016년 9월 창당, 2017년 대선에서 케냐타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활동하였음.
- 그러나 쥬빌리당의 일부 당원은 당초 약속과 달리 루토 부통령이 아닌 키쿠유족 출신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고자 루토 부통령을 포함한 통합공화당원들을 견제하고 있어, 루토 지지세력과 케냐타 지지세력 간 당내 분열이 심화되고 있음.
- 다수의 리서치 전문기관들은 루토 대통령이 대선(2022.8월) 전에 통합공화당원, 일부 오렌지민주화운동당원* 및 일부 군소정당원들과 새로운 정당을 창설하여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관측함.
 - * 제1야당인 오렌지민주화운동당(ODM)에서 차기 유망 대선 후보자 중 한명인 Hassan Joho 부대표(남동부 해안지역 몸바사 주지사)가 당내 대권 후보에서 떨어질 경우, Joho 지지자들은 루토가 창당할 정당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음

사회동향

소말리아 테러 조직 알샤바브(Al-Shabaab)에 의한 테러 위험 상존

- 케냐 정부가 소말리아에 근거지를 둔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알샤바브(Al-Shabaab)를 축출하기 위해 조직된 AU소말리아평화유지군(African Union Mission In Somalia)에 케냐가 2011년 10월 군 병력을 파병한 이후, 알샤바브는 케냐를 주요 공격 대상국으로 지정, 급조폭발물에 의한 무차별 테러 공격*을 자행하여 케냐의 치안이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관광업·물류업 등 서비스업 위축, 외국인투자 감소 등의 경제적 타격도 심각하게 받고 있음.
 - * 주요 사건: 2013년 나이로비 웨스트게이트 쇼핑몰 테러(67명 사망), 2015년 모리 대학교 가리사 캠퍼스 테러(148명 사망), 2019년 나이로비 호텔 테러(10명 이상 사망), 케냐-소말리아 국경 인근 북동부 지역 도로매설 테러(10명 이상 사망)
- 소말리아 접경지역인 북동부(만다라, 와지라, 가리사 지역) 및 주요 도시(나이로비 등)가 알샤바브 테러의 주요 타겟이 되었으나, 알샤바브는 최근 남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를 통해 군사·정보통신 장비가 많은 남동부 지역 등에서도 공격이 가능함을 과시한 바 있음.
 - * 2020년 1월 미군-케냐군 합동기지를 공격하여 미국인 3명 등의 사상자가 발생함.
 - ** 2020년 1월 보고된 IHS Markit 내부정보에 따르면 알샤바브가 몸바사 지역에 대한 테러 공격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몸바사 지역 내 정부 기관, 교통 인프라, 관광지에 대한 치안 강화가 요구됨.

12) 1차 투표에서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 유효투표의 과반 및 47개 주의 절반 이상에서 최소 25%를 동시에 득표해야 함. 조건 미충족 시,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2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함.

국제관계

동아프리카의 지역경제공동체 내 선도적 역할 수행

-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맹주국으로서 아프리카 역내 지역통합을 중시하여 지역공동체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케냐는 현재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동아프리카 정부간 개발기구(IGAD)에 가입하였으며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가입 비준도 완료한 상태임.
- 동아프리카공동체(EAC)¹³⁾는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남수단의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세동맹과 단일 공동시장을 형성하여 역내 상품·서비스·자본·노동 이동이 자유로움. 통화동맹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EAC 통화기구를 설립하고, 2024년까지 단일화폐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금 및 회원국 간 합의 부족으로 일정 추진이 더딘 상황임.
- 한편, 탄자니아는 무역 및 지역 인프라 개발에서 케냐의 주요 경쟁국으로 양국 간 무역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케냐는 EAC 회원국 중 르완다·우간다·부룬디 등 3국과의 독자적인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탄자니아·남수단과는 신중한 실리적 관계를 취하고 있음.
-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는 2012년 아프리카연합(AU) 총회에서 아프리카 역내 교역 활성화를 위해 대륙 차원에서 창설된 자유무역지대로, 2019년 5월 30일 공식 발효되었음.
- Tralac에 따르면 아프리카연합(AU)의 55개 회원국 중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54개국이 서명하였으며, 2020년 4월 기준 케냐를 포함한 28개국이 비준을 완료하였고 2개국(카메룬, 앙골라)은 비준 승인은 완료되었으나 비준서 기탁 지연으로 완료 절차가 순연 중임. AfCFTA는 2020년 7월 1일 본격적으로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되어 AU 위원회에서 추후 기준일을 발표 예정임.

서방 국가(미국)와 아시아 국가(중국) 간 중립외교

- 케냐는 영연방의 일원으로, 전통적으로 영국,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실질적인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도 확대하여 왔음.
- 케냐타 대통령 집권 초기에는 ICC 기소¹⁴⁾ 등에 따라 서방국가와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으나, 이후 미국 대통령의 아프리카 국가 순방, AGOA 연장, Power Africa Initiative(전력·인프라 친환경 에너지사업) 참여 등으로 관계가 개선되어 현재 동아프리카 내에서 미국의 전략적인 경제·안보 협력국의 지위를 유지¹⁵⁾하고 있음.
- 2020년 2월 케냐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로는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타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협의는 본격적으로 착수된 바 없음. 또한, 양자 무역협정에 대한 EAC, AfCFTA 등 지역공동체의 문제 제기로 FTA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케냐의 최대 수입국(2019년 기준 상품수입의 18.9%)으로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중국 자본을 기반으로 한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로 인프라 투자에 따른 對중국 채무액이 큼.
- 한편, 중국수출입은행은 당초 약속과 달리 2018년 9월 나이바샤-키수무 구간의 표준철도궤도(SGR) 사업에 대한 자금(38억 달러) 공급 의사를 철회하는 등 최근 중국 금융기관과의 관계가 일부 경색되었으나 거대 국유기업인 중국교통건설공사(CCCC) 등 중국 기업은 여전히 케냐의 교통, 항만 등 사업에 활발히 참여 중임.

13) 2017~21년도 EAC 우선순위: ① 단일 관세 지역 통합, ② 역내 인프라 개발, ③ 회원국 간 모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 ④ 역내 산업화 촉진, ⑤ 농업 생산성 및 부가가치 확대, ⑥ 역내 평화, 안보, 굿 거버넌스 증진 ⑦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제도 변화

14) 2007년 대선 이후 선거 결과를 놓고 발생한 중족 간 유혈사태 배후를 주도한 혐의로 케냐타 대통령이 ICC에 기소되었다가 ICC 공소가 2014년 12월 철회됨.

15) 케냐는 미국 민간 기업의 아프리카 내 주요 투자처로 ICT, 서비스, 금융, 재생에너지(수력, 태양광, 풍력)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함.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

- 케냐는 1994년, 2000년, 2004년 세 차례에 걸쳐 파리클럽과 채무재조정을 실시함. 1994년 채무재조정 건은 상환을 완료하였으며, 2000년* 및 2004년** 대상 채무액은 상환 중임. 파리클럽의 최신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케냐의 파리클럽 회원국 및 관련 기관 앞 채무액은 총 2,606백만 달러로 ODA 채무액은 2,404백만 달러 그 외 채무액은 202백만 달러임.
* 총 3.0억 달러 규모로 ODA 채무는 상환기간 20년(거치기간 10년 포함), Non-ODA 채무는 18년(거치기간 3년 포함)임.
** 총 3.5억 달러 규모로 ODA 채무는 상환기간 20년(거치기간 10년 포함), Non-ODA 채무는 15년(거치기간 5년 포함)임.
- 2019년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규모는 2,578.2백만 달러(단기 162.0백만 달러, 중장기 2,416.2백만 달러)이며, 현재 잔액의 0.3%에 해당하는 8.8백만 달러를 연체 중임.
-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장기 외채 원리금 상환비율(당해년도 잔액 대비 상환액)은 2016년 5.6%에서 2017년 6.1%, 2018년 9.1%로 증가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상환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2019.06)	6등급(2018.06)
Moody's	B2 (2020.04)	B2 (2018.02)
Fitch	B+ (2020.01)	B+ (2019.04)

OECD와 국제신용평가 모두 기존 등급 유지

- OECD는 2004년 6월 케냐에 대해 6등급으로 상향 조정 후 현재까지 6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Moody's는 다변화된 경제구조, 금융 부문의 성숙도, 양호한 중장기 경제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채 증가 추세에 비해 부족한 재정수입, 재정정책의 효과성 및 신뢰도 하락 등으로 케냐에 대해 B2 등급을 유지하였음.
- Fitch 또한 안정적이고 견실한 경제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높은 공공부채·외채 비중, 재정 건전화 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케냐에 대하여 B+ 등급을 유지하였음.

- 2019년 케냐 경제는 농업 부문 위축에도 불구하고 관광업 등 서비스업 호조, 민간소비 회복, 공공인프라 투자 등으로 5.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소비자물가상승률도 5.2%로 중앙은행의 관리 목표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기록함. 다만 2020년 경제성장률은 동아프리카를 강타한 메뚜기 떼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락할 것으로 전망됨.
- 케냐는 쌍둥이 적자, 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공공부채 및 외채 규모가 큰 편임. 다만, 2019년 5월 유로본드 발행으로 2019년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5.1개월분에 해당하는 90.4억 달러로 크게 확충되었음.
- 케냐 정부는 농업의존적 경제구조를 탈피하여 다변화된 경제구조를 형성하고자 제조업을 육성 중이며 특별경제구역 등을 활용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나 유틸리티 등 기본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임.
- 2017년 대선에서 야권 후보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 후 야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불안한 정국이 지속 되었으나 이후 여야 대표가 극적으로 화해하며 정세가 진정되었음. 다만,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연합당들 내 분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말리아 테러 조직 알샤바브에 의한 테러 위험은 유의미한 수준임.
- 케냐는 EAC 등 지역공동체 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아프리카 내 전략적인 경제·안보 협력국임. 한편, 중국과의 경제협력 증대로 교역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對중국 채무액도 큼.